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어떤 논쟁



최성일*

둘 다 이른바 '생산적인 논쟁'은 되지 못했지만, 천규석의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실천문학사)를 둘러싼 논쟁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책세상)이 빚은 논란과 더불어 올 상반기 독서계를

달군 '뜨거운 감자'였다. 엄밀히 말하면,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 논쟁은 책 자체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다는 이 책을 심하게 '비난'한 서평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 논쟁의 추이와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밝혀둘 점이 있다. 내가 논쟁의 배경을 이루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철학에 무지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나는 유목, 노마디즘, 욕망, 기계, 리즘, 홈 패인/매끄러운 같은 들뢰즈와 가타리식 용어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피해 왔다. 줄져 『책으로 만나는 사상가들 2』에서 두 사람을 함께 다룬 것은 예외적인 일이었다.

하여 논쟁의 전개과정을 훑어볼 자격이 내게 있는지 여부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 논쟁 참가자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철학과 관련돼 있다. 하지만 그런 점은 개의치 않겠다. 내 관심사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철학 자체가 아니라 논쟁을 촉발시킨 서평의 문제점이다. 이로써 내가 어느 입장에서 있는지 분명해졌다. 논쟁자의 논점이 서로 달랐던 탓에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 논쟁은 애당초 알찬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마침 배달된 <교수신문> 최근호(제405호, 2006년 7월 3일자)를 보니, 석달에 걸친 논쟁은 얼추 마무리될 모양이다.

독자로서 모욕당한 기분

논쟁은 <교수신문>(제392호, 2006년 4월 3일자)에 실린 이정우의 '논쟁 서평' 「無知의 용기 혹은 지적 몰이해」가 지켰다. 이 서평을 처음 읽고서 나는 몹시 불쾌했다. 내가 천규석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분을 느낀 것은 나 스스로도 의아한 일이었다. 내가 '이정우를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의구심과, 독자로서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 글을 쓰려고 다시 읽어봐도 불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번 물어보자. 책 뒤표지를 보니 이 책의 저자는 농사꾼인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는 '농사꾼 철학자'라고 써어 있다. 그렇다면 저자는 농사꾼인가. 농사와 철학의 경계를 허물고 '농사꾼

* 출판평론가, robi@treechal.com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철학자'로서 살아가는 노마드, 또는 (역시 요새 유행하는 말로서) '하이브리드' 인가. 그렇다면 저자는 '침략주의자' 인가."

서평자의 지적대로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 뒤표지에는 그런 문구가 있다. "농사꾼 철학자 천규석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거침없는 쓴 소리". 그래도 서평자가 책 뒤표지의 카피에 가까운 글에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는 건 아닌가? 책날개의 저자 소개 글의 내용은 좀 다르다. "천규석은 웅골진 농사꾼이다. 때로는 급진적인 근본주의자로, 때로는 철학자로, 때로는 극단적인 환경론자로 비치지만, 자신에게는 무섭도록 철저한 생활인이다."

쟁점은 '농사꾼 철학자'가 형용모순인지 아닌지의 여부다. 곧,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농사꾼의 철학이 남다르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으나 농사꾼은 얼마든지 철학자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철학자가 농사꾼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본다. 하여 이정우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저자에게 묻고 싶다. 농사짓는 것을 장난이라고 생각하는가. 분명 저자는 펄쩍 뿜 것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에 대해 최소 몇 년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땅을 잘 이해하고 농사의 기본을 익혀야 한다. 도구 쓰는 것, 계절을 읽는 것을 비롯한 많은 공부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자연에 대한 믿음과 헌신. 농사를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저자에게 말하고 싶다. 사유하고 말하고 글 쓰는 것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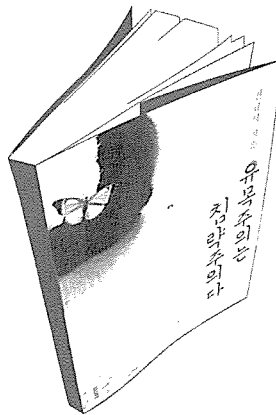
마찬가지라고."

당치않은 비유

과연 그럴까? 저자가 농사꾼이라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이런 비유는 당치않다. 적어도 글쓰기는 농사짓기보다 쉽다. 삶의 쓸모에서도 글쓰기는 농사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글쓰기 백날 해봐라. 거기서 밥이 나오라, 떡이 나오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글 농사' 따위의 같잖은 비유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 책은 또 무에 그리 대단할까.

"철학이란 2천5백년 이상을 숙성해 온 학문이다. 그리스 철학과 제자백가를 터득하는 데에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역사가 2천5백년이 숙성해 온 학문이 철학이다. 그 끝에 『천의 고원』이 있다. 도대체 저자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알고나 말하는 것인가." 책과 출판관련 분야 중사자로서 단언하건대 그런 책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외국 철학자의 생각은 원전을 직접 탐구해야 한다는 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상식 아닌가. "『천의 고원』 같은 책을 읽으려면" "우선 프랑수를 공부해야 할 것이다. 어학을 진지하게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하나의 외국어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잘 알 것이다. 저자는 이 점에 대해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물론 모든 책을 원어로 읽을 수는 없으며 읽어야 한다는 법도 없다. 그러나 어떤 책을 원어로 읽지 않은 사람은



적어도 그 사실만으로 우선은 겸손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맞다. 그래서 다른 나라 책을 번역서로만 읽는 나는 외국 사상가에 대해 아는 척 안 한다.

서평의 윤리 안 지켜

홍윤기는 <황해문화>(2006년 여름호, 통권 51호)에 기고한 「철학에서의 파시즘과 철학할 권리 - 철학자 농민 천규석의 철학과 유목주의의 문제」를 통해 이정우의 악평을 비판한다.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에 대한 서평 형식의 반론에서 홍윤기가 문제 삼은 건 이정우의 말투다. 이정우의 무례함이다.

“이정우의 서평은 자신의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서평하는 책의 내용을 공정하게 복원하여 비판한다는 서평의 윤리만 제대로 지켰어도 괜찮았을 일을 한평 더 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이정우 서평으로 인해 문제는 굉장히 깊게, 그리고 커져 버렸다. 즉 천규석의 책에 대한 서평은 그 책에 대한 관심과 내용의 우수성 차원을 넘어 이제 ‘철학에서의 민주주의’, 좁게는 ‘인간으로서 철학할 권리’에 대한 입장 표명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홍윤기는 이정우의 서평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접하고 더욱 울화가 치밀었다고 토로한다. 하나는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를 펴낸 실천문학사 발행인 김영현의 반론이고 (<http://www.silcheon.com/board3/content.asp?idx=527&menu=dc>), 다른 하나는 김진석이 쓴 일종의 논쟁 관전평이다(<교수신문> 제396호, 2006년 5월 1일자)

“그래서 필자는 안타깝게 전문가의 도량을 구하는 김영현 선생이나 비열한 인물평으로 가득찬 사이비 서평의 근본적 문제점을 애써 담담하게 덮어둔 김진석이 다 같이 숙이고 들어간 천규석 철학함의 문제점, 즉 학적 엄밀성이나 철학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천규석이 철학적 논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그 지적을 해소시킴으로써 천규석 선생의 철학할 권리부터 재구성하고 들어가겠다.”

김영현과 김진석의 반응

사실, 김영현의 반박문은 약간 어중간하다. 천규석의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에 대한 이정우의 비판이 “날카로움을 넘어 조롱적이고, 차갑고 경멸적”이라고 하면서도, “천규석이 짙은 헛다리를, 감히 들뢰즈와 가타리를 논한 오버플, 거침없는 언어로 질책한다. 함부로 철학을 논하는 자에 대한 엄정한 철학 교수의 분노와 푸른 서슬이 느껴진다”고 썼다. 두 사람의 가치를 모두 인정하는 땀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논조로 볼 수도 있다.

“내가 아는 한 이정우 교수는 우리시대에 드물게 보는 철학자이다. 그의 지식과 지혜는 지금처럼 ‘진리의 보편성과 객관성’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목말라하는 후학들에게 참으로 귀한 지침이 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규석 선생은 평생 동안 농촌을 지키며 소농공동체의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어쩌면 그의 삶은 들뢰즈가 그토록 증오하던 강고한 중심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사유와 맞닿아있을 지도 모른다.”

한편, 김진석의 관전평 「철학자들, 노마디즘의 소비화에 一助」는 양시양비론으로 흐를 소지가 있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다. “나는 오히려 ‘노마디즘’이, 비록 시대마다 다른 상황 속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공격성과 침략성을 띠었다고 생각한다. 들뢰즈 등도 ‘전쟁기계’로서의 유목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듯, 실제로 역사 속에서 유목성이 일종의 공격성을 띠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노마디즘의 침략성을 인정하는 김진석은, 천규석을 염두에 둔 생태주의에도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유목주의의 침략성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역사 속의 모든 침략적 이동성을 비난하려고만 하는 맹목적 생태주의도 자신의 관념성을 깨야 할 듯하다. 복지사회의 이념조차 통째로 거부하는 ‘지역 자치공동체’가 다소 추상적이고 이상적 이념이라면, 역설적인 것은, 그것이 지금 맞서 싸우려는 ‘유목주의’ (대중적 이미지로 떠돌아다니는) 역시 비슷하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를 떠나고 싶다.”

그런데 이정우가 하고자 하는 말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홍윤기의 반론에도 인용된 ‘논쟁 서평’의 마지막 단락이 그가 진정으로 하고픈 말은 아닐까.

“서구 철학의 정점에서 나온 사유를 기본 공부도 안 된 대학원생이 그야말로 엉터리로 번역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엉터리 번역본을 다시 엉터리로 읽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엉터리 이야기를 듣고서 엉뚱하기 짝이 없는 ‘비판’을 하고, 선정성에만 눈이 먼 기자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책에 찬사를 던진다. 세상이 온통 사기요 장난인 것처럼 느껴진다. 한국 사회를 떠나고 싶다.”

〈교수신문〉 지면을 통해 이어진 논쟁에서 이정우는 『천의 고원』에 대한 천규석과 홍윤기의 오독을 집중적으로 따진다. 논쟁의 마침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 홍윤기의 재비판에 대한 재반론(〈교수신문〉 제405호, 2006년 7월 3일자)에서 이정우는 이번 논쟁의 핵심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문제의 포인트는 이것이다. 만일 누군가를 ‘침략주의’니 하는 식으로 비난하려면(사실 이런 비난은 정말 강도 높은 것이다. 누군가가 자기를 ‘침략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당연히 그 비난의 대상이 되는 저작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논의 대상을 그렇게 성실하게 독해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를 ‘침략주의자’ 운운하는 것은 정말이지 부도덕한 행동이다. 이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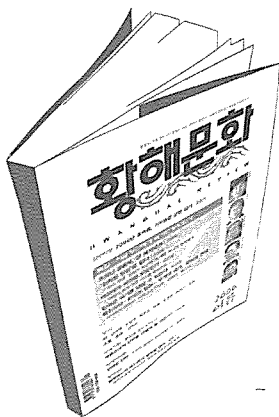
논점이 다른 논쟁

이에 앞서 홍윤기는 재반론을 통해 이정우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그와의 인간 관계를 끊겠다는 폭탄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정우 씨가 그렇게 자신에게 돌아올 예의를 챙기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요구하겠다. 그가 먼저 철학의 공론장을 오염시킨 자신의 무례와 불손함을 공적으로 사과하라. 그런 ‘최소한의 예의’조차 표시하지 않는다면 나는 논쟁을 포함해 더 이상 그와 일체의 학문적, 인간적 교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번 사단이 ‘철학함의 민주주의’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온 인간적 충정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교수신문〉 제403호, 2006년 6월 19일자)

이정우가 이러한 사과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여기까지 써 내려오는 동안 이정우의 '악평'에 대한 반감이 꽤 가셨다. 나로선 이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내가 보기에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에 대한 이정우의 서평과 홍윤기의 서평 형식의 반론 이후, 두 사람의 논쟁은 논점이 서로 벗어난 다른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 같다. 이는 또한 홍윤기의 <황해문화> 기고문 결론의 한 대목으로 글을 마무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민으로서의 자기 삶을 시대의 이탈에 저항하는 사고의 근거로 용기 있게 열어 보이는 철학하는 농민 천규석의 철학하기는 이 시대에 철학함이 결코 빈약하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만든다. 어떤 경우에도 천규석은 철학자이기 때문이며 철학에서의 민주



주의는 바로 그렇게 내실화될 것이 때문이다.”

(이밖에 이번 논쟁과 관련 있거나 논쟁의 일부인 글로는 <녹색평론>(2006년 5-6월호, 통권 제88호)에 실린 우석훈의 「한국 자본주의와 유목주의」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인터넷 사이트<커뮤니티>철학카페(<http://hanphil.or.kr/bbs/zboard.php?id=cafe>)에서의 논쟁이 있다. “후덕하지만 날카로운 논쟁이 아니라, 날은 썼지만 길도는 논의들에 또하나의 소음을 더하게 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만 하다”는 우석훈은 “천규석 선생의 책을 읽고 나서 이정우 선생의 짧은 서평을 읽고 나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층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한다. 2006년 4월 11일의 한국철학사상연

구회 웹 사이트 게시판 논쟁은, 논쟁 마당이 공론의 장으로서의 성격이 좀 약하다. 그리고 이 글은 속된 말로 ‘계급장 떼고 맞붙는다’는 취지로 인용문을 제외하고 등장인물의 존칭과 직함을 생략했다.) (KIA)